

## “재정운용 정상화 과제, 흔들림 없이 지속 추진” - 「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」 제2차 회의 개최 -

- 임기근 차관 “확실한 과정 관리로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려야”
- 1차 회의(5.7일)에서 선정한 5개 정상화 과제의 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

기획예산처는 6.19일(금) 14시, 재정정보원 11층 대회의실에서 임기근 차관 주재 「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」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.

- \* (팀장) 차관, (간사) 기초실장, (내부위원) 국고보조금단장, 예산총괄과장, 발행관리과장 (외부위원) 김현아 본부장(조제재정연구원), 하태원 교수(부산대학교), 김정훈 원장(재정정책연구원), 임효창 교수(서울여자대학교), 우석진 교수(명지대학교), 신윤성 박사(산업연구원)

1차 회의(5.7일) 이후 TF는 선정 과제별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해 왔으며,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각 과제의 이행성과와 향후계획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.

- \* (1차 회의 선정 과제) ▲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, ▲국고보조금 미정산·미징수 관리 철저, ▲부정행위(주가조작, 담합 등)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, ▲R&D 투자 정상화 및 신뢰 회복, ▲복권 미수령 당첨금 지급 개선

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정상화 과제가 일회성 점검으로 끝나서는 안되며,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 책임을 지고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.

특히, ①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, ②국고보조금 미정산·미징수 관리 철저, ③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과제에 대해서는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며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 및 공익신고장려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 제정 등 후속 입법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.

임기근 차관은 “이번에 추진 중인 5건의 정상화 과제는 모두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”이라며, “확실한 과정 관리로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”고 밝혔다.

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기존의 과제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재정운용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발굴·개선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	류승수 (044-214-1410)
		담당자	서기관	이홍섭 (leehs86@korea.kr)
			사무관	박제용 (jypark0601@korea.kr)

